

한국의 자료조직 분야 연구동향 분석 : 1970~2010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Resource Organization in Korea : 1970~2010

김 정 현(Jeong-Hyen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자료조직 분야 세부 주제별 흐름 분석 |
| 1. 연구목적 | 1. 자료조직 일반 |
| 2. 연구방법 및 범위 | 2. 분류법 |
| 3. 선행연구 | 3. 목록법 |
| II. 자료조직 분야 연구동향의 계량적 분석 | 4. 주제분석 |
| 1. 학회지별 분석 | 5. 색인초록 |
| 2. 연도별 분석 | 6. 메타데이터 |
| 3. 영역별 분석 | IV. 결 론 |

초 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 6개 전문 학회지의 1970~2010년간에 수록된 4,015편의 논문가운데 자료조직관련 논문 607편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자료조직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1970~2010년간 자료조직분야 학술지 발표논문은 연평균 14.8편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는 2005년과 2009년이 40편으로 가장 높았다. 영역별로는 목록법이 241편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분류법 190편, 색인초록 75편, 메타데이터 65편, 주제분석 22편, 자료조직 일반 14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목록법 영역에서는 OPAC와 MARC, 분류법 영역에서는 KDC와 DDC, 자동분류, 메타데이터 영역에서는 메타데이터 요소분석과 관리 및 적용, 색인초록 영역에서는 색인과 자동색인, 주제분석 영역에서는 시소러스 등의 주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료조직 분야의 연구내용을 분석해 보면, 자료조직의 기본적인 원리나 이론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KDC 분류체계 개선, 메타데이터 요소분석, 목록규칙 개선 등에 관한 논문은 대체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증적인 분석이나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순비교나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개선안을 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키워드: 연구동향, 자료조직

ABSTRACT

This study is to represent the research trends of the resource organization in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607 papers related with resource organization in 4,015 papers on journals of 6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societies from 1970 through 201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average yearly papers in the case of academic journals published 14.8 pieces. The year published the largest number of papers: 2005 and 2009. The order of the number of papers by the domain of resource organization: cataloging, classification, indexing and abstracting, metadata, subject analysis. And the research on basic principle or theory in the resource organization showed insufficient. The research on KDC classification, cataloging rule, metadata element has are usually presented for improvements. But most of the research is not empirical analysis or objective assessment but subjective judgments of the researchers.

Keywords: Research Trends, Resource Organization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hgim@chonnam.ac.kr)

• 접수일: 2011년 8월 22일 • 최초심사일: 2011년 9월 3일 • 최종심사일: 2011년 9월 23일

I. 서론

1. 연구목적

1957년 연세대학교에 도서관학과(현 문헌정보학과)가 설립된 이후 1970년대 말경부터 1980년대에 걸쳐 많은 대학들이 문헌정보학과를 설립함으로써 국내의 문헌정보학계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아울러 1970년 한국도서관학회(현 한국문헌정보학회)를 필두로 문헌정보학관련 학회들이 설립되어 학술연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자료조직 분야는 문헌정보학과와 핵심교과목으로, 문헌정보학관련 학회의 핵심 연구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자료조직 분야는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대체로 분류법, 목록법, 주제분석, 색인초록작성, 메타데이터작성 등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늘날 자료조직 분야는 KDC나 DDC와 같은 표준적인 분류표의 주기적인 개정과 KCR, AACR, ISBD, KORMARC 형식과 같은 표준적인 목록규칙의 개정을 비롯하여,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자료조직 대상이 기존의 물리적인 형태의 자료에서 무형의 인터넷관련 자료로 확대됨으로써 자료조직 영역의 확장, 자료조직 환경의 변화와 함께 메타데이터 및 기록물조직 관리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요구 등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구체적인 결과물로 표현되고 있는 전문 학술지의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자료조직 분야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각 분야별 연구동향에 대한 계량적 분석은 한국문헌정보학회의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1권~제44권(1970~201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1권~제41권(1974~2010), 한국정보관리학회의 『정보관리학회지』 제1권~제27권(1984~2010), 한국비블리아학회의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1권~제21권(1972~2010), 서지학회의 『서지학연구』 제1권~제46권(1986~2010), 한국기록관리학회의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권~제10권(2001~2010)에 게재된 전체 논문 가운데 자료조직과 관련된 모든 논문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자료조직 분야를 크게 자료조직 일반, 분류법, 목록법, 주제분석, 색인초록, 메타데이터의 6개 영역으로 대별하고, 각 영역을 다시 세분하여 전체 48개 주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동향을 분석하면서 자료조직 분야 연구영역을 설정한 각 연구자들의 분류기준을 분석해보면 매우 다양하고, 영역구분도 대부분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필자는 2003년 손정표의 연구¹⁾에서

사용한 6개 영역을 그대로 사용하고, 세부영역은 DDC 등을 참고하여 연구자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하여 48개 영역으로 다시 구성하였다.

한편 메타데이터 영역이나 자동색인, 자동초록, 자동분류처럼 문헌정보학 분야뿐만 아니라 전산이나 전자공학, 정보경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표되고 있는 경우에 문헌정보학 분야만의 논문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데 자료조직 분야의 특성상 대부분이 문헌정보학의 범주 안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만으로 한정하였으며, 문헌정보학계에서 주도하지 않은 관련 학술지와 대학논문집, 기관전문지, 학위논문 등은 제외하였다. 분석대상 범위를 학술지만으로 한정된 것은 학술지의 일반적인 특성상 학문의 역사적 흐름과 학자들의 관심분야를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 선행연구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조직 분야의 연구동향에 관한 분석적 연구는 대부분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면서 하나의 영역으로 다루어 분석하였으며, 자료조직 분야만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헌정보학 영역의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은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것으로 손정표의 연구가 있다.²⁾ 그는 문헌정보학을 문헌정보학 기초, 도서관경영, 장서개발, 공공봉사, 서지학, 도서 및 도서관사, 정보학의 8개 영역으로 나눈 다음 각 분야를 필요에 따라 세분하였으며, 이 가운데 자료조직 분야는 다시 자료조직 일반, 분류법(지식구조), 목록법, 주제분석, 색인작성법, 메타데이터의 6개 주제로 구분하였다. 앞서 연구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도 자료조직 분야를 6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각 분야별 세분은 항목을 세부 영역별로 확장하여 재구성하였다.

한편 손정표의 연구에는 그동안 문헌정보학 분야 연구동향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이 망라적으로 소개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자료조직 분야에 한정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하기로 한다. 1994년 정연경은 『한국도서관학관계문헌색인 1945~1974』와 『한국문헌정보학색인 1975~1992』를 바탕으로 해방 후 48년간 국내의 분류관련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분석하였으며,³⁾ 2010년 유사라는 최근 10년간(1999~2009) 국내 메타데이터관련 주제의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 120편을 분석하여 최신의 메타데이터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취약부분을 제시하였다.⁴⁾ 이와 같이 전문 학술지에서 자료조직 분야의 논문을 망라적으로 추출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1) 손정표,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1957-20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3호(2003), pp.9-32.

2) 상계논문.

3) 정연경, "국내 분류학 관련 문헌 분석: 1945-1992,"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1회(1994), pp.125-128.

4) 유사라, "메타데이터 주제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2호(2010), pp.406-426.

이루어지지 않았다.

II. 자료조직 분야 연구동향의 계량적 분석

1. 학회지별 분석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계에서 설립을 주도한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지는 앞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개의 전문 학회지가 있다. 이 가운데 1970년 한국문헌정보학회에서 창간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972년 한국비블리아학회에서 창간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74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에서 창간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는 문헌정보학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984년 한국정보관리학회에서 창간한 『정보관리학회지』는 정보관리학 분야, 1986년 서지학회에서 창간한 『서지학연구』는 서지학 분야, 2001년 한국기록관리학회에서 창간한 『한국기록관리학회지』는 기록관리학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 자료조직 분야에서도 각 학회지가 표방하고 있는 본래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6개 전문 학회지에 수록된 전체 논문수는 4,015편으로 『문헌정보학회지』가 996편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952편, 『정보관리학회지』가 885편이다. 그런데 자료조직관련 논문수는 모두 607편으로 이 가운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29.7%(180편), 『정보관리학회지』가 27.5%(167편),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27.4%(166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학술지별 자료조직관련 논문수

학회지	논문수	전체 논문수	자료조직관련 논문수						
			일반	분류법	목록법	주제분석	색인초록	메타데이터	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996	996	3	49	77	5	15	17	166(27.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952	952	5	73	76	2	14	10	180(29.7)
정보관리학회지	885	885	3	36	46	13	38	31	167(27.5)
한국비블리아학회지	406	406	1	17	18	1	4	1	42(6.9)
서지학연구	585	585	-	9	17	-	4	-	30(4.9)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1	191	2	6	7	1	-	6	22(3.6)
계(%)	4,015	4,015	14(2.3)	190(31.3)	241(39.7)	22(3.6)	75(12.4)	65(10.7)	607(100%)

분야별로 살펴보면 분류법 영역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73편,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49편이며, 목록법 영역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가 각각 77편과 76

편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주제분석, 색인초록, 메타데이터 영역은 『정보관리학회지』에서 각각 13편, 38편, 31편으로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서지학연구』에서는 고서 및 고문서 조직, 2001년 한국기록관리학회에서 창간한 『한국기록관리학회지』에는 기록물조직과 관련된 논문이 다른 학회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각 학술지별로 자료조직관련 연구의 비중은 『한국문헌정보학회지』가 수록된 총 996편 논문 중 166편으로 16.7%,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952편 중 180편으로 18.9%, 『정보관리학회지』 885편 중 167편으로 18.9%, 『한국비블리아학회지』 406편 중 42편으로 10.3%, 『서지학연구』 585편 중 30편으로 5.1%,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1편 중 22편으로 11.5%를 차지하고 있다.

2. 연도별 분석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41년간 학술지에 발표된 자료조직관련 논문수는 607편으로 연평균 14.8편이 발표되었으며, 발표량의 연도별 순위를 보면 2005년과 2009년이 40편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2004년과 2007년이 39편, 2010년이 37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영역별, 연도별 학술지 수록 논문현황

연도 \ 영역	일반	분류법	목록법	주제분석	색인초록	메타데이터	계
1970	-	1	-	-	-	-	1
1971	-	1	1	-	-	-	2
1972	-	1	-	-	-	-	1
1973	-	-	-	-	-	-	-
1974	-	-	-	-	-	-	-
1975	-	-	1	-	1	-	2
1976	-	-	-	-	-	-	-
1977	-	-	3	-	1	-	4
1978	-	-	1	-	-	-	1
1979	-	1	1	-	-	-	2
1980	1	-	3	-	-	-	4
1981	-	2	1	-	-	-	3
1982	-	-	2	-	1	-	3
1983	-	1	1	-	1	-	3
1984	-	4	4	-	2	-	10
1985	1	2	1	-	4	-	8
1986	-	2	1	-	1	-	4
1987	-	3	2	-	1	-	6
1988	-	2	-	-	2	-	4
1989	-	1	3	-	2	-	6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2권 제3호)

연도 \ 영역	일반	분류법	목록법	주제분석	색인초록	메타데이터	계
1990	-	2	3	-	-	-	5
1991	-	4	9	-	2	-	15
1992	-	5	4	-	1	-	10
1993	1	1	3	1	2	-	8
1994	-	8	7	-	5	-	20
1995	1	2	8	1	4	-	16
1996	-	4	11	2	5	-	22
1997	-	5	7	1	2	1	16
1998	-	8	11	-	3	1	23
1999	-	4	14	-	7	1	26
2000	-	10	10	2	4	2	28
2001	1	13	11	1	3	3	32
2002	-	10	8	-	3	3	24
2003	-	13	14	-	1	6	34
2004	1	12	17	2	2	6	39
2005	2	8	16	2	2	10	40
2006	-	10	14	2	4	3	33
2007	2	7	18	-	2	10	39
2008	2	16	7	3	4	3	35
2009	-	15	13	3	3	6	40
2010	2	12	11	2	-	10	37
계(%)	14(2.3)	190(31.3)	241(39.7)	22(3.6)	75(12.4)	65(10.7)	607(100.0)

〈표 3〉 영역별, 5년 단위별 학술지 수록 논문현황

연도 \ 영역	70~75	76~80	81~85	86~90	91~95	96~00	01~05	06~10	계(%)
일반	-	1	1	1	1	-	4	6	14(2.3)
분류법	3	1	9	10	20	31	56	60	190(31.3)
목록법	2	8	9	9	31	53	66	63	241(39.7)
주제분석	-	-	-	-	2	5	5	10	22(3.6)
색인초록	1	1	8	6	14	21	11	13	75(12.4)
메타데이터	-	-	-	-	-	5	28	32	65(10.7)
계(%)	6(1.0)	11(1.8)	27(4.4)	26(4.3)	68(11.2)	115(18.9)	170(28.0)	184(30.3)	607(100.0)
연평균(편)	1.2	2.2	5.4	5.2	13.6	23.0	34.0	36.0	14.8

시대별 논문의 양적인 증가상태는 5년 단위별로 분석한 〈표 3〉을 보면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다. 1970~80년대에 비해 1990년대 들어 양적으로 급속하게 증가되며, 2000년대 들어서도 이미 양적으로 증가된 기초를 그대로 유지하고 하고 있다. 〈표 3〉에서와 같이 최근 10년간의 논문이 354

편으로 전체의 60%에 해당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손정표는 각 대학 문헌정보학과에서 배출하고 있는 연구인력의 증가와 1990년대 들어 표면화되기 시작하여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연봉제,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제의 영향⁵⁾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2003년도에 발표된 내용이지만 지금시점에 돌이켜보아도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양적인 증가가 완만하게 지속되거나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영역별 분석

1970~2010년간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에 발표된 자료조직관련 논문의 현황을 5년 단위로 묶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자료조직 일반 영역

자료조직 일반 영역은 <표 4>와 같이 자료조직 일반, 아웃소싱, 용어표기 등 4개의 주제로 구분하였으며, 41년간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수는 모두 14편으로 연평균 0.3편이 발표되었다. 이 가운데 자료조직일반에는 자료조직에 대한 일반적이고 복합적인 주제를 포함하여 자료조직 이론, 자료조직 전문사서와 관련된 논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웃소싱에는 자료조직업무 전반에 대한 아웃소싱 관련 논문이 포함되며, 목록업무에 한정된 아웃소싱관련 논문은 목록법에서 다루었다. 용어표기는 분류표나 서지정보에 있어 로마자표기 등과 같은 논문이 포함되어 있다.

<표 4> 자료조직 일반 영역 5년 단위별 학술지 수록 논문현황

영역	연도	70~75	76~80	81~85	86~90	91~95	96~00	01~05	06~10	계(%)
일반		-	1	1	-	2	-	2	3	9(64.3)
아웃소싱		-	-	-	-	-	-	2	1	3(21.4)
용어표기		-	-	-	-	-	-	-	2	2(14.3)
계(%)		0(0.0)	1(7.1)	1(7.1)	0(0.0)	2(14.3)	0(0.0)	4(28.6)	6(42.9)	14(100.0)
연평균(편)		0.0	0.2	0.2	0.0	0.4	0.0	0.8	1.2	0.3

나. 분류법 영역

분류법 영역은 <표 5>에서와 같이 분류법 일반, 역사, KDC, DDC, UDC, CC, 비교분류, 자동분류, 인터넷분류, 고서·고문서 분류, 기록물분류, 전문분류, 도서기호 등 13개의 주제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분류법 일반에는 분류이론 및 적용 등과 관련된 논문, 비교분류에는 특정 주제분야

5) 손정표, 전개논문, p.17.

를 대상으로 2개 분류법 이상을 비교 분석한 논문, 전문분류에는 전문도서관이나 특정 주제분야의 장서분류에 논문, 자동분류에는 분류기호 자동생성과 용어 자동분류에 관한 논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41년간 학술지에 발표된 분류법관련 논문수는 모두 190편으로 연평균 4.6편이 발표되어 6개 영역중 목록법 영역에 이어 두 번째로 연구활동이 활발하다. 이를 5년 단위별로 살펴보면 2006~2010년 61편, 2001~2005년 56편으로 나타나 최근 10년간 117편으로 전체의 61.67%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다시 세부 주제별로 살펴보면 KDC가 29편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DDC와 자동분류 각각 23편, 전문분류 21편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서·고문서 분류와 도서기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논문편수는 적지만 꾸준히 일정 수준의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분류와 기록물분류는 2000년 이후에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5〉 분류법 영역 5년 단위별 학술지 수록 논문현황

영역	연도								
	70~75	76~80	81~85	86~90	91~95	96~00	01~05	06~10	계(%)
일반	-	-	-	-	4	4	4	6	18(9.5)
역사	-	-	-	-	1	1	3	1	6(3.2)
KDC	-	-	-	-	-	4	8	17	29(15.3)
DDC	-	-	-	1	4	5	7	6	23(12.1)
UDC	-	-	-	-	-	-	2	-	2(1.0)
CC	-	-	-	2	-	-	-	-	2(1.0)
비교분류	-	-	-	3	1	3	4	4	15(7.9)
자동분류	-	-	2	2	4	1	8	6	23(12.1)
인터넷분류	-	-	-	-	-	3	9	4	16(8.4)
고서·고문서 분류	1	-	4	1	1	2	1	3	13(6.8)
기록물분류	-	-	1	-	-	-	5	5	11(5.8)
전문분류	-	-	1	-	3	5	4	8	21(11.1)
도서기호	2	1	1	1	2	2	1	1	11(5.8)
계(%)	3(1.6)	1(0.5)	9(4.7)	10(5.3)	20(10.5)	30(15.8)	56(29.5)	61(32.1)	190(100.0)
연평균(편)	0.6	0.2	1.8	2.0	4.0	6.0	10.4	12.2	4.6

다. 목록법 영역

목록법 영역은 〈표 6〉에서와 같이 목록법 일반, 역사, 표준화 및 서지제어, KCR, AACR 및 RDA, ISBD, MARC, 기술부, 표목부, 전거목록, FRBR 및 FRAD 모형, 목록평가, OPAC, 목록 이용행태, 종합목록 및 공동편목, 비도서편목, 고서목록, 기록물기술, 아웃소싱 등 19개의 주제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목록법 일반에는 목록이론 및 적용, CIP, 목록에 있어 로마자표기, 목록교육 등과 관련된 논문이 포함되어 있다.

41년간 학술지에 발표된 목록법관련 논문수는 모두 241편으로 연평균 5.9편이 발표되어 6개 영역중 연구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이를 5년 단위별로 살펴보면 2001~2005년 66편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2006~2010년 63편으로 나타나 최근 10년간 129편으로 전체의 53.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다시 세부 주제별로 살펴보면 OPAC이 30편으로 가장 높으며, 이는 자료조직 영역 전체에서도 색인초록 영역의 색인 다음으로 높은 순위이다. 이어서 MARC이 25편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새로운 주제로 등장한 분야가 FRBR 및 FRAD 모형, 목록평가, 기록물기술, 아웃소싱 등이다.

〈표 6〉 목록법 영역 5년 단위별 학술지 수록 논문현황

영역	연도	70~75	76~80	81~85	86~90	91~95	96~00	01~05	06~10	계(%)
	일반	-	-	1	1	1	4	7	9	23(9.5)
역사	1	-	1	1	-	1	3	-	7(2.9)	
표준화, 서지제어	-	-	-	1	-	1	-	2	4(1.6)	
KCR	-	-	-	-	-	1	2	-	3(1.2)	
AACR, RDA	-	2	-	-	-	1	1	1	5(2.1)	
ISBD	-	-	-	-	-	1	1	-	2(0.8)	
MARC	-	-	1	1	9	6	4	4	25(10.4)	
기술부	-	1	-	-	3	1	2	2	9(3.7)	
표목부	-	2	1	1	2	1	-	1	8(3.3)	
전거목록	-	-	-	-	4	4	4	2	14(5.8)	
FRBR, FRAD 모형	-	-	-	-	-	-	6	11	17(7.1)	
목록평가	-	-	-	-	-	-	6	5	11(4.6)	
OPAC	-	-	-	1	4	13	5	7	30(12.4)	
목록이용행태	-	1	1	-	1	7	2	-	12(5.0)	
종합목록, 공동편목	1	-	-	-	1	2	3	4	11(4.6)	
비도서편목	-	-	3	1	-	7	4	3	18(7.5)	
고서편목	-	2	1	2	6	3	4	1	19(7.9)	
기록물기술	-	-	-	-	-	-	9	9	18(7.5)	
아웃소싱	-	-	-	-	-	-	3	2	5(2.1)	
계(%)	2(0.8)	8(3.3)	9(3.7)	9(3.7)	31(12.9)	53(22.0)	66(27.4)	63(26.2)	241(100.0)	
연평균(편)	0.4	1.3	1.8	1.8	6.2	10.6	13.2	12.6	5.9	

라. 주제분석 영역

주제분석 영역은 〈표 7〉에서와 같이 주제분석 일반, 주제명표목, 시소러스의 3개 주제로 구분하였다. 41년간 학술지에 발표된 주제분석관련 논문수는 모두 22편으로 연평균 0.5편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자료조직의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논문수가 주제분석 관련 논문이 「정보관리연구」나 「도서관」 등과 같은 전문기관지에 는 1970년대부터 발표되기 시작

하였지만 학술지에는 1990년대 들어 주로 발표되었다. 논문 발표량의 연도별 순위를 보면 2006~2010년이 10편으로 가장 높으며, 세부 주제별로 살펴보면 시소러스가 15편으로 전체의 68.2%를 차지하고 있다.

〈표 7〉 주제분석 영역 5년 단위별 학술지 수록 논문현황

영역 \ 연도	70~75	76~80	81~85	86~90	91~95	96~00	01~05	06~10	계(%)
일반	-	-	-	-	-	-	1	2	3(13.6)
주제명표목	-	-	-	-	-	1	-	3	4(18.2)
시소러스	-	-	-	-	2	4	4	5	15(68.2)
계(%)	0(0.0)	0(0.0)	0(0.0)	0(0.0)	2(9.1)	5(22.7)	5(22.7)	10(45.5)	22(100.0)
연평균(편)	0.0	0.0	0.0	0.0	0.4	1.0	1.0	2.0	0.5

마. 색인초록 영역

색인초록 영역은 〈표 8〉에서와 같이 색인초록 일반, 색인, 자동색인, 초록, 자동초록 등 5개 주제로 구분하였다.

41년간 학술지에 발표된 색인초록 작성과 관련된 논문수는 모두 75편으로 연평균 1.8편이 발표되었으며, 발표량의 연도별 순위를 보면 1996~2000년이 21편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1991~1995년이 14편이다. 세부 주제별로 살펴보면 색인이 36편으로 색인초록 영역의 4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색인초록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자료조직 영역 전체에서도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8〉 색인초록 영역 5년 단위별 학술지 수록 논문현황

영역 \ 연도	70~75	76~80	81~85	86~90	91~95	96~00	01~05	06~10	계(%)
일반	-	-	-	-	-	3	-	-	3(4.0)
색인	1	1	2	2	7	12	7	4	36(48.0)
자동색인	-	-	4	3	4	3	-	1	15(20.0)
초록	-	-	2	-	2	2	1	4	11(14.7)
자동초록	-	-	-	1	1	1	3	4	10(13.3)
계(%)	1(1.3)	1(1.3)	8(10.7)	6(8.0)	14(18.7)	21(28.0)	11(14.7)	13(14.3)	75(100.0)
연평균(편)	0.2	0.2	1.6	1.2	2.8	4.2	2.2	2.6	1.8

바. 메타데이터 영역

메타데이터 영역은 〈표 9〉에서와 같이 메타데이터 일반, 메타데이터 요소분석, 메타데이터 관리

및 적용, 메타데이터 개발, 메타데이터 표준화 등 5개 주제로 구분하였다.

41년간 학술지에 발표된 메타데이터작성과 관련된 논문수는 모두 65편으로 연평균 1.6편이 발표되었으며, 세부 주제별로 살펴보면 메타데이터 요소분석이 23편(35.4%)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메타데이터 관리 및 적용이 21편(32.3%)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 메타데이터 영역 5년 단위별 학술지 수록 논문현황

연도 영역	70~75	76~80	81~85	86~90	91~95	96~00	01~05	06~10	계(%)
일반	-	-	-	-	-	-	-	1	1(1.5)
요소분석	-	-	-	-	-	2	8	13	23(35.4)
관리 및 적용	-	-	-	-	-	2	9	10	21(32.3)
개발	-	-	-	-	-	1	8	4	13(20.0)
표준화	-	-	-	-	-	-	3	4	7(10.8)
계(%)	0(0.0)	0(0.0)	0(0.0)	0(0.0)	0(0.0)	5(7.7)	28(43.1)	32(49.2)	65(100.0)
연평균(편)	0.0	0.0	0.0	0.0	0.0	1.0	5.6	6.4	1.6

Ⅲ. 자료조직 분야 세부 주제별 흐름 분석

1. 자료조직 일반

자료조직 일반 영역에는 자료조직 일반 및 이론, 자료조직 전문사서, 아웃소싱, 용어표기관련 논문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내용분석 결과 자료조직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 연구가 미흡하다. 이는 분류법이나 목록법에 있어서도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서관에 있어 민간위탁이나 아웃소싱관련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있었지만 자료조직분야에 있어 아웃소싱관련 논문은 2001년 김영귀의 연구⁶⁾를 필두로 모두 8편이 발표되었다. 이는 〈표 4〉의 자료조직일반 영역과 〈표 6〉의 목록법 영역을 합산한 것이며, 도서관계에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2. 분류법

분류법 영역의 전반적인 연구흐름을 분석해보면 대체로 KDC나 DDC와 같은 표준적인 분류도

6) 김영귀, "정리업무와 대학도서관의 아웃소싱에 관한 연구: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4호(2001), pp.361-394.

구의 주기적인 개정 전후, 인터넷의 확산과 같은 새로운 분류환경의 도래, 기록물관리와 같은 사회적 요구 등으로 인하여 분류법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DC 4판과 5판 개정 전후에 KDC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분류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인터넷 디렉토리 분류체계의 분석과 관련된 연구, 그리고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최근의 사회적인 요구와 함께 기록물분류의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표 5>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가 KDC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거나, 특정 주제분야를 선정하여 KDC와 주요 분류표의 전개과정을 비교 분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문헌연구에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례중심 연구로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즉, 기존의 문헌연구를 벗어나 국내 출판문헌을 직접 분류표에 적용함으로써 분류항목 하나하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정 제안안을 제시하려는 실증적인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분류는 분류표를 지식베이스화하여 분류기호의 자동부여를 위한 연구, 전문가시스템의 방법을 통해 분류기호의 생성에 관한 연구, 정보검색을 목적으로 용어군집화를 통한 용어자동분류에 대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최근의 연구는 주로 용어자동분류나 인터넷 문서의 자동분류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문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일반화 하여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많다고 생각된다.

전문분류에 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도서분류법, 국제백진분류법, 학문분류, 법률전문도서분류, 섹스피어관련 도서분류, 장르분류, 불교전적분류, 중국도서분류 등이 있다. 앞으로 사회가 더욱 다양해지고 전문분야가 심화될수록 이러한 특정 분야의 전문분류법 개발과 분석에 대한 연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분류법 영역의 연구내용을 분석해 보면, 분류의 기본적인 원리나 이론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KDC와 DDC가 가장 널리 이용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들의 분류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논문은 대체로 특정 주제분야의 분류항목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증적인 분석이나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몇몇 분류법의 단순비교나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개선안을 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분류나 기타 분류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증적이거나 객관적인 평가가 미흡하면 아무래도 현장의 적용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도서기호에 대한 연구는 분류법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문수가 적지만 『문헌정보학회지』의 전신인 『圖書館學』 제1집에 이재철의 논문이 자료조직분야의 논문으로 학술지에 처음 발표되었으며,⁷⁾ 여기에 대한 비판 논문으로 이듬해 제2집에 장일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⁸⁾ 당시에 이들은

7) 이재철,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 저자기호표 연구 : 한글의 구조상의 특색, 기입의 형식, 배열, 표기법 문제 등과 관련한 고찰," 『圖書館學』, 第1輯(1970), pp.1-58.

8) 장일세,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저자기호표에 관한연구 : 특히 이재철씨의 논고를 중심으로," 『圖書館學』, 第2輯(1972), pp.1-45.

이미 『圖協月報』에서 저자기호법의 원리에 대해 각자 논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이러한 학술논쟁을 벌인 것으로 생각된다.

3. 목록법

목록법 영역의 전반적인 연구흐름을 분석해보면 대체로 ISBD, AACR, KCR, KORMARC 형식과 같은 표준적인 목록도구의 주기적인 개정, 인터넷의 확산과 같은 새로운 목록환경 조성, 목록의 새로운 구조화를 위한 FRBR 모형, 기록물이나 전자자료 등과 같이 새로운 매체 출현과 사회적 요구의 발생 등으로 목록법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ISBD, AACR, MARC 21 형식의 개정과 함께 KCR과 KORMARC 형식의 개정을 위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분류법의 개정 전후에 주로 연구되고 있는 분류체계 개선에 관한 논문과 비슷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목록법 영역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OPAC은 주로 OPAC의 구성방법 및 디스플레이 형식, 인터페이스, 관중별 및 이용자별 탐색특성 등에 관한 논문이 많다.

FRBR 모형이 1998년 IFLA에서 발표된 후 국내에 관련 논문이 처음 소개된 것은 2002년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이며,⁹⁾ 이후 목록분야를 비롯하여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 <표 6>에서와 같이 2006~2010년에 11편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목록법 영역에서 오늘날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AACR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RDA가 제정되어 이와 관련된 연구가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KCR 및 KORMARC과 관련하여 RDA 연구가 기대되고 있는 분야이다.

기록물분류와 마찬가지로 기록물기술에 대한 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대 후반 IMF 상황으로 인해 도서관계에도 경제적인 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공동편목, 아웃소싱, 목록평가에 관한 논문이며, 이는 도서관계에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한편 목록법 영역의 연구내용을 분석해 보면, 분류법과 마찬가지로 목록의 기본적인 원리나 이론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KCR 제4판 이후 표목부에 대한 연구가 실제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주제분석

주제명표목의 이론에 관한 연구는 1997년 김태수의 논문¹⁰⁾이 있으며, 기타 주제명표목에 관한

9) 김태수, 이성숙, "IFLA FRBR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9집(2002), pp.103-108.

논문은 모두 LCSH 주제명표목의 구조나 한국과 관련된 주제명 분석이다. 주제명표목 개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소러스의 개발에 관한 논문은 1993년 정영미의 논문¹¹⁾이 있으며, 이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소러스의 구조 및 용어관계와 관련된 연구가 8편으로 시소러스 연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시소러스와 온톨로지 관련, 시소러스 유지관리, 신문시소러스개발 등에 관한 논문이 있다.

5. 색인초록

색인초록 일반은 색인초록을 공통적으로 취급하여 특성과 현황, 작성기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논문이다.

앞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색인초록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자료조직 영역 전체에서도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색인의 경우, 색인어와 관련된 연구가 8편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색인시스템, 색인기법, 정기간행물기사색인, 인용색인, 주제색인, 색인의 현황 및 역사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색인기법과 관련된 논문으로는 용어열색인, 연관색인, 텍스트분할, SGML 기반 색인 등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주제색인과 관련된 연구로는 주제색인의 기본원리에 대한 논문을 비롯하여 정기간행물기사, 신문기사, 소설, 법률, 이미지, 웹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주제색인의 작성을 연구한 논문이 있다. 자동색인의 경우 대부분 1980년대와 90년대에 발표되었으며, 통계적 기법, 언어학적 기법 등을 적용하여 정기간행물기사나 학술지 등을 대상으로 한글 자동색인이 주로 연구되었다.

초록의 경우 한국의 초록 특성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영상자료의 초록작성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자동초록의 경우 자연언어 처리 문법 등을 응용하여 한글 자동초록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등을 통해 웹문서나 보도기사의 자동요약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6.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관련 연구는 문헌정보학뿐만 아니라 전자공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문헌정보학관련 학술지의 논문제목에 '메타데이터'란 키워드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7년이며,¹²⁾ 이후 관련 논문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10) 김태수, "주제명표목의 구조에 관한 연구," 情報管理學會誌, 第14卷, 第1號(1997), pp.77-105.

11) 정영미, "신문시소러스 개발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5집(1993), pp.51-82.

선행연구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유사라는 문헌정보학 분야뿐만 아니라 전자공학을 비롯한 관련 학술지를 망라적으로 분석하여 메타데이터 연구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세부 주제별분석에서 메타데이터 구성요소에 대한 논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표 9>에서와 같이 문헌정보학분야의 학술지만을 대상으로 한 필자의 조사에서도 메타데이터 요소분석에 대한 논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일반 기록물, 이메일 기록물, 구술사 기록물, 방송 기록물 등 각종 기록물관련 메타데이터 요소에 대한 논문이 모두 8편으로 요소분석에 대한 논문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디지털자원, 아카이빙, 학위논문, 지구관측자료, 청소년자료, 연구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메타데이터 요소관련 논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메타데이터 요소분석과 관련된 논문의 내용분석을 해 보면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라기보다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요소가 정의되고 선정된 논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메타데이터 관리 및 적용, 개발에 관한 연구는 메타데이터의 관리, 상호 운용성, 개념모델링, 온톨로지 적용과 관련된 논문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문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일반화 하여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많다고 생각된다.

IV. 결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 6개 전문 학회지를 대상으로 1970~2010년까지 41년간 수록된 4,015편의 논문가운데 자료조직관련 논문 607편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자료조직 분야의 연구동향을 제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1970~2010년까지 41년간 자료조직분야 학술지 발표논문은 연평균 14.8편으로 나타났으며, 발표량의 연도별 순위는 2005년과 2009년이 40편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최근 10년간의 논문이 354편으로 전체의 60%에 이르고 있다.

둘째, 학회지별 현황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80편, 『정보관리학회지』 167편,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66편으로 자료조직관련 논문은 주로 이 3개 학회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역별 발표논문의 현황은 목록법이 241편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분류법 190편, 색인초록 75편, 메타데이터 65편, 주제분석 22편, 자료조직 일반 14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목록법 영역에서는 OPAC와 MARC, 분류법 영역에서는 KDC와 DDC, 자동분류, 메타데이터 영역에서는 메타데이터 요소분석과 관리 및 적용, 색인초록 영역에서는 색인과 자동색인, 주제분석 영역에서는 시소

12) 이원석 등, "인터넷 메타데이터 검색 및 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권, 제2호(1997), pp.199-215.

13) 유사라, 전계논문, p.416.

리스 등의 주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자료조직 분야의 연구내용을 분석해 보면, 자료조직의 기본적인 원리나 이론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KDC 분류체계 개선, 메타데이터 요소분석, 목록규칙 개선 등에 관한 논문은 대체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증적인 분석이나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순비교나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개선안을 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이 연구는 주로 자료조직 분야의 연구동향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지만 질적인 분석을 통해 자료조직 연구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문경민. 문헌정보학 연구동향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3.
- 손정표.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1957-200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3호(2003), pp.9-32.
- 엄영애. “도서관학 연구문헌의 주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창립 30주년기념 학술논문집(1989), pp.211-235.
- 유사라. “메타데이터 주제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2호(2010), pp.406-426.
- 이란주, 변자영. “문헌정보학 연구방법에 관한 연구: 국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 제11권, 제2호(2000), pp.141-155.
- 이명희. “내용분석법에 의한 한국문헌정보학 학술지 연구논문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6권, 제3호(2002), pp.287-309.
- 정동열. “연구방법론 분석에 의한 문헌정보학 이론 개발에 관한 연구.” 情報管理學會誌, 第10卷, 第2號(1993), pp.23-41.
- 정연경. “국내 분류학 관련 문헌 분석: 1945-1992.”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1회(1994), pp.125-128.
- 정진식. “한국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5권, 제3호(2001), pp.55-77.
- 조찬식. “문헌정보학 연구 및 연구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3권, 제3호(1999), pp.45-61.
- 최희곤.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분석.” 情報管理學會誌, 第16卷, 第3號(1999), pp.137-158.
- 한복희. “지식혁명과 문헌정보학의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발표회, 2000, pp.1-10.
- 한상완, 조인숙. “문헌정보학분야 학회지의 논문분석.” 도서관, 제51권, 제1호(1996), pp.114-139.